

## 전남 바이오클러스터 현황 및 발전전략

표 병 식

동신대학교

바이오 테크는 21세기 지식기반 산업을 이끌어갈 신기술로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이오산업이 유망산업으로 주목받는 이유는 이 분야가 고부가가치, 고성장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라남도는 생물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동신대를 필두로 생물자원산업화지원센터(2000년), 화순의 생물산업연구센터(2002년) 그리고 나주의 생물산업지원센터(2002년) 설립하여 산·학·연·관 협력 체제를 바탕으로 전남지역에 풍부한 생물자원을 이용한 산업화방안을 강구함으로써 광주근교의 나주와 화순을 벨트로한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 중에 있으며, 지금까지 농도(農道)로만 알려져 있는 전라남도를 생물산업을 근간으로 한 지식기반산업 지역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동신대 BIC는 천연자원을 소재로한 기업지원 및 상품개발, 화순 생물자원 연구센터는 의약품생산을 특화분야로 설정하여 센터 선도기업으로써 이미 녹십자 백신연구소가 이전을 결정하였고 4개의 생산라인을 새로이 구축하여 백신제조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예정이며, 나주 생물산업지원센터는 기능성식품 개발 및 기업지원을 사업내용으로 시설 구축을 추진하고 있어, 결국 3개 센터가 삼각 협력 체제를 이루어 전남의 바이오산업을 활성화 시키고자 한다. 여기에 지역내 대학, RIS 및 RRC사업, 누리사업 등의 연관된 프로그램이 서로 연계관계를 형성함으로써 향후 전남의 생물산업은 가일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은 자원활용형 바이오클러스터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한 기업 육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low tech과 high tech이 적절한 균형을 이룸으로써 생물 산업의 발전을 꾀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이러한 전남의 바이오클러스터의 성공적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지원과 의지가 바탕이 됐을 때 가능하리라 본다.